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오스카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훈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안방을 지켜라” 외산 모바일 게임과 전면전

국내 10위권 '열혈강호' 등 중국산 4개 국내 업계 11월 잇따른 출시 시장 방어

오버히트, 언리얼엔진4 3D 캐릭터 매력 테라M, 사전예약 200만 출시 전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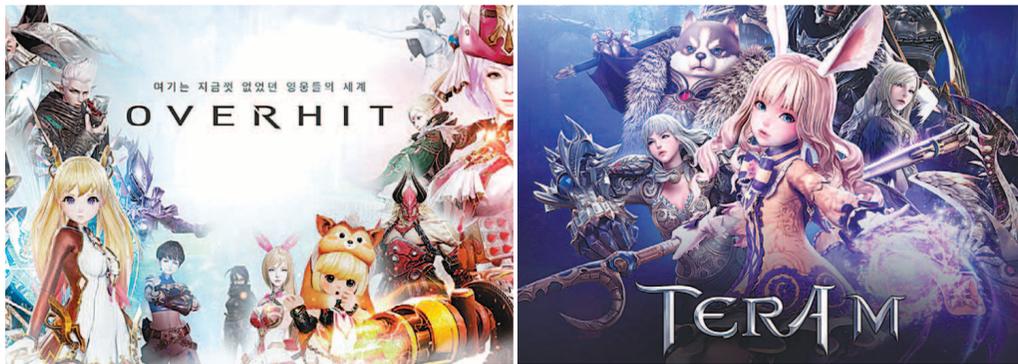


외산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이에 맞선 토종 한국 모바일 게임의 반격이 시작됐다.

게임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외산, 특히 중국산 게임의 인기는 심상치 않다. 6일 구글플레이 기준 게임 매출 순위를 보면 1위부터 4위까지는 '리니지M', '리니지2 레볼루션', '엑스', '모두의마블' 등 국산 게임들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중국 게임들이 포진하고 있다. 중국 게임 중 '열혈강호'가 5위, '소녀전선'이 6위, '음양사'가 7위, '붕괴3rd'가 8위에 올라 한국 게임을 턱밑까지 바짝 쫓아오고 있다.

이중에는 한국 문화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하거나 국내 기업이 유통을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개발은 중국 기업이 한 외산 게임이다. 중국 게임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매출 순위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11월 출시 예정인 국산 모바일 게임 넥슨의 '오버히트'(왼쪽)와 넷마블게임즈의 '테라M'. 최근 한국 시장 점유율을 부쩍 높이고 있는 중국산 게임 공세에 맞선 국내 업체들의 기대주들이다. 사진제공 | 넥슨·넷마블게임즈

중국 게임의 개발력이 예전에 비해 높아져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국산 모바일게임 공세가 거세지면서 한국 게임사들도 수성에 나섰다. 11월에 기대작들이 잇따라 출격할 예정이다. 넥슨의 '오버히트'도 그 중 하나다. 넷게임즈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이 게임은 28일 정식 출시 예정이다. 인기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히트'의 공식 후속작이다. 2015년 출시한 '히트'는 국내에서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에 올

랐고, 해외에서도 다수 국가에서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오버히트'는 캐릭터를 수집해 전투를 벌이는 수집형 RPG로 언리얼엔진4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3D 그래픽 캐릭터가 장점이다.

넷마블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ORPG) '테라M'도 11월 한국 게임의 기대주이다.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블루홀의 인기 글로벌 IP '테라'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이다. 글로벌 퍼블리셔로 입지를 구축한 넷마블

이 유통을 담당한다는 점이 올 하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요소다. 원작 PC온라인게임에서 호평 받은 캐릭터와 그래픽, 콤포 액션, 파티플레이를 비롯해 방대한 세계관과 콘텐츠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사전예약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게임 유저들 사이에 화제다. 넷마블은 추성훈과 남궁민, 걸스데이 민아를 모델로 발탁하는 등 사전 프로모션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6일

코스피지수	2549.41	↓	-8.56
코스닥지수	703.79	↑	+2.66
日 닛케이 지수	2만2548.35	↑	+9.23
中 상하이 종합	3388.17	↑	+16.4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52	↑	+0.019
환율 (원·달러)	1115.0	↑	+1.2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484.53	↓	-265.36

오늘의 얼굴

대한석유협회장에 김효석 씨 선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효석 전 의원(사진)이 대한석유협회장에 선임됐다. 대한석유협회는 6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중앙대학교에서 경영대학 교수 및 학장을 지냈다.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이후 민주당의 집권플랜인 '뉴민주당플랜'을 만든 주인공이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더 강력해진 그랜저

국산차 판매 1위인 현대차 준중형 세단 그랜저가 상품성을 강화한 2018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그랜저는 1월부터 9월까지 11만 2819대가 팔려 국산차 판매량에서 압도적인

1위다. 2위는 쏘나타로 8만4670대가 팔렸다.

2018년형 그랜저의 큰 특징은 현대자동차가 그랜저에 최초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모두 적용한 고

속도로 주행 보조는 차간거리 제어부터 차선 유지, 정지 후 재출발, 속도제한 구간에서의 속도 자동 조절 기능 등이 포함된 첨단 주행 보조 기술이다. 이전까지는 제네시스 브랜드에만 적용했다.

제네시스 G70에 탑재해 호평을 받은 카카오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 아이'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도 이번에 그랜저에 적용했다. 주행 중 후방 상황을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행 중 후방영상 디스플레이'(DRM)도 기본 모델부터 적용했다. 블루링크 무상 이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제네시스 이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적용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 '카카오 아이' 탑재

5년으로 확대했고 필요 시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공기 청정 모드 역시 전 모델에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행 중 정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닛 도어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기존 최상위 모델(가솔린 3.3 셀러브리티)에서 가솔린 3.0 모델(익스클루시브 스페셜)까지 확대 적용하고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에 브라운 투톤 칼라를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18년형 그랜저 2.4 가솔린 모델은 3105~3400만원, 2.2 디젤 모델은 3405~3700만원, 3.0 가솔린 모델은 3595~3900만원, 3.3 가솔린 모델은 4330만원(셀러브리티 단일 트립)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3580~3995만원(세제 혜택 후)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2018 그랜저



The new Audi R8

강력하고 다이내믹한 퍼포먼스의 스포츠카 '더 뉴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 출시

플래그십 스포츠카...최고속도 330km/h

아우디 코리아는 6일 '더 뉴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를 출시했다. 아우디의 전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플래그십 고성능 스포츠카다.

이전 모델 보다 60마력이 더 높은 610마력의 5.2리터 V10 가솔린 직분사(FSI) 엔진과 최적화된 7단 S트론닉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

파워풀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최대 토크는 57.1kg.m이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시간은 단 3.2초다. 연비는 6.5km/l(복합연비), 최고 속도는 330km/h이다.

차체에는 아우디 R8 쿠페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이 적용됐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바디에 카본 파이버 강화 플라스틱(CFRP)을 대거 적용해 차체강성을 이전보다 40% 높였다.

37개의 LED로 이루어진 LED 헤드라이트 시스템에 아우디 레이저 라이트 상향등을 장착해 약 600m까지 비추 수 있다.

실내는 신형 아우디 익스클루시브 R8 스포츠 버킷 시트, 다기능 R8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 새로 디자인한 기어레버, 알칸타라 천정, 무광 카본 인레이 등 스포티한 디테일이 더해졌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2억490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인터넷, 이미지 검색 '쇼핑 카메라' 론칭



인터넷파크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검색 서비스 '쇼핑 카메라(사진)'를 선보였다. 스마트폰에 저장했거나 즉석에서 촬영한 이미지와 쇼핑몰 내 상품 이미지를 비교 검색해 가장 유사한 상품을 찾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다.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추천 상품 목록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상품 정보 화면으로 이동해 채팅로봇 '톡집사' 서비스를 통해 곧바로 최저가를 검색할 수 있다. 김근오 인터넷파크 서비스기획팀

장은 "기존 채팅로봇 및 스타일 추천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새 서비스를 소개했다.

NH농협은행, 스마트-인터넷뱅킹 전면 개편



NH농협은행이 스마트-인터넷뱅킹을 전면 개편(사진)했다.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보안카드·OTP)가 없어도 6자리 간편비밀번호로 하루 500만원까지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골라 메인화면에 배치

할 수 있고, 퀵로그인 기능을 통해 로그인 단계를 단축했다. 공과금도 보안매체 없이 납부 가능하다. 그 외 큰 글씨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큰 글 서비스와 사용자 위치에서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주는 기능도 갖추었다. 기업 인터넷뱅킹은 글로벌뱅킹에 중국어와 베트남어 버전을 추가했고, 기업 스마트뱅킹은 외화예금 이체거래와 인출센터 기능을 강화했다.

정정숙 기자

컴투스 '체인 스트라이크' 테스트

컴투스는 신작게임 '체인 스트라이크'(사진)의 테스트를 12일까지 실시한다. 신개념 턴제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체스의 이동과 공격을



모티브로 한 자리 배치와 협공 시스템을 통해 전술과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200여종의 캐릭터와 전문 성우진을 통한 스토리 구성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테스트는 사전 신청 없이 세계 누구나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검색해 내려받은 후 참여할 수 있다. 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 등 5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컴투스는 글로벌 이용자들의 플레이 패턴을 분석해 정식 출시까지 완성도를 더욱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데이터 경제

해외여행 연 평균 2.6회 인기 1위 지역은 일본

한국관광공사에 올해 1~9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 해외여행 실태 및 2018 해외여행 트렌드 전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올해 해외여행을 평균 2.6회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많이 간 국가로는 일본(29.2%)이 1위였고, 이어 중국(7.8%), 베트남(7.6%), 태국(6.3%), 대만(6.2%), 홍콩·마카오(5.8%), 필리핀(5.0) 순이었다. 해외여행 만족도는 80.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목적지별로는 괌·사이판 및 일본 여행자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3.64점으로 가장 낮았다.

